

일본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소식(8월)

폭염이 물러갔는지 조석간에 조금 기온이 내려가서 지낼만 하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오며 저희를 위해 변함없이 보내주신 재정,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선교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1. 일본선교회의 활동 보고

일본선교회는 7명의 실행위원과 14명의 일반회원 총21명이 한 마음되어 일본지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안산지역을 방문하여 회원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간관계상 이인숙 선교사만 다녀왔습니다. 작년 한 회원의 남편이 소천하여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계심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김없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본부인 만경중앙교회에 모여 일본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사역,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중보기도가 한 가지 한 가지 응답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본선교회의 보람에 흠뻑 잠기곤 합니다.

2. 일본선교회가 섬기는 일본지부의 선교사와 교회 소개

저희 일본선교회는 바울선교회 일본지부 10가정의 20명, 그 외의 1가정 등 총11가정의 22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리즈로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김태헌/김혜영 선교사(자녀: 복음, 영원, 시온)

김태헌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노조미교회는 동경 인근의 사이타마현에 있는 교회로서 고이종현 선교사님이 개척하여 3층의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건축하였으나 은퇴를 앞두고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김태헌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후임이 되어 지금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태헌 선교사님은 현재 뇌경색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고 두 달에 한번 MRI를 찍으며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헌 선교사님의 완쾌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박동국/정선미 선교사(자녀: 세희, 이세, 이레)

일본에는 약 80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약 1000교회가 됩니다. 무목교회란 오래 전에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신자는 증가하지 않고 연로한 신자들은 소천하는 이유로 결국 목회할 목회자가 없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현상이 되어 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다만 다행히 교회당이 있어 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해집니다. 박동국 선교사는 144년전에 설립된 야나가와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야나가와교회는 작년까지 무목교회였으나 그 교회에서 박동국 선교사를 초청하여 담임이 되어 아주 은혜롭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144년동안 교회가 존속 가능했던 것은 교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만큼 교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일본목회자 리트리트

일본 목회자 리트리트가 금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오쿠타마바이블샤레에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교회(행1:8)”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개최되었습니다. 강사로는 이동휘 목사님과 한도수 선교사님이 강의 및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일본목회자영성 세미나”를 15년간 개최하다가 중단하여 늘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일본목회자 리트리트는 그 연속이라고 생각하여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일본인 목회자들은 중단된 세미나를 회상하면서 30명 이상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4. 기도제목

- (1)하나님께서 일본선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실행위원과 회원을 인도해 주시도록
- (2)일본선교회를 통한 기도와 재정지원이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교회에 큰 힘이 되도록
- (3)일본지부 11가정의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채워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2025년 8월 12일

전형구, 이인숙, 사무엘 드림